

Scented of YOUNG LIVING

지친 심신을 부드럽게 다독여줄 아이템이 간절한 시즌, 영리빙의 100% 순수 에센셜 오일과 젠틀 미스트 퍼스널 디퓨저로 힐링 가득한 시간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Editor 정은영(프리랜서) Photographer 정태호 Cooperation 영리빙 코리아(080-500-2200)

손목, 목 주변 등에
바르면 기분을
상쾌하게
리프레싱시키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지친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고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나이트타임 스킨케어시
1-2방울 사용하면 상큼한 향과
함께 촉촉함을 오래 느낄 수 있는
'레몬 에센셜 오일'.

향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니트보다 포근하기도, 때론 과일처럼 싱그럽기도 한 다채롭고 풍성한 향기 레이어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노하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향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다면 에센셜 오일을 라이프에 접목한 브랜드 영리빙의 에센셜 오일 무브먼트를 주목해보자. 1994년, D. 게리 영과 메리 영 부부가 탄생시킨 영리빙은 직접 농장을 경영하면서 원료의 씨앗 선별부터 제품 포장(Seed to Seal)까지 관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차별된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브랜드로, 한국에는 2020년 1월 첫 공식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격조 높은 이름다움과 건강, 즉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영리빙은 올 1월 영리빙 웹사이트에서 한정 출시하는 '리미티드 스페셜 팩'을 제안한다. 리미티드 스페셜 팩은 한 손에 쏙 감기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젠틀 미스트 퍼스널 디퓨저와 스테디셀러 오일 3종(라벤더, 페퍼민트, 레몬)으로 구성해 언제 어디서든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디퓨저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원하는 에센셜 오일을 젠틀 미스트 퍼스널 디퓨저에 한두 방울 넣고 물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DIY 디퓨징해 사용하는데, 전원을 누르면 안개처럼 미세한 에센셜 오일 미스트가 분사된다.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법으로 에센셜 오일 마니아층은 물론, 향 커스터마이징이 생소한 일반인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것이다.

영리빙 '리미티드 스페셜 팩'
젠틀 미스트 퍼스널 디퓨저 + 스테디셀러 오일 3종(라벤더, 페퍼민트, 레몬) 9만원대.